2021.10.7 www.dairy.or.kr 통계조사팀(044-330-2072)

CONTENTS

- 헤드라인 뉴스
- 주요이슈
- 본부동향
- IDF Korea 동향
- 출판물
- 주요행사

헤드라인 뉴스

IDF, '낙농업의 중요성' 재차 강조

영양 공급은 물론 사회 · 경제 · 환경적 긍정적 역할 강조

IDF가 UN FSS(푸드시스템 정상회의)에서 세계 식량안보와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 있어 낙농업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먼저 IDF는 지난 7월 열린 사전회의에 민간단체 대표로 참석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단에서 우유 및 유제품의 중요성은 물론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에서 안전하고 영양가 높은 식품 공급을 위한 낙농업의 노력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전 세계 10억명 이상의 생계를 책임지는 산업으로 지역사회 유지에도 도움이 되고 있으며, 동물복지 향상 및 환경보존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피력했다.

이어 GDP(글로벌낙농플랫폼)와 공동 성명서를 발표해 낙농업은 지속가능한 생산 시스템을 통한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유제품 공급을 통해 기아근절, 빈곤종식 및 양성평등에 기여하고 있으며, 동물성과 식물성 식품은 경쟁상대가 아닌 조화로운 섭취를 통해 건강은 물론 사회, 경제 및 환경적으로도 시너지 효과를 일으킨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설명했다.

또한, 영양소가 풍부한 유제품은 전 세계 인류의 영양과 건강을 위해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영양 및 건강에 있어 우유 및 유제품의 중요한 역할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근거가 많다는 점을 설명했다. 특히 학교우유급식 프로그램을 통해 세계 전역 약 1억 6천만 명의 어린이들에게 영양을 공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IDF는 이번 정상회의를 앞두고 낙농 · 축산업계와 반대세력간 격론이 이어짐에 따라 TF를 구성해 낙농업계의 대응논리를 개발하는 등 안전하고 건강하며 평등한 세계 식품 시스템에서 낙농업과 유제품의 역할에 대한 인식 강화를 위해 앞장서왔다.

주요이슈

최근 세계 각국의 학교우유급식 운영 현황

우유의 가치와 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성장 발달에 있어 우유 급식의 역할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 지난 2000년 FAO가 매년 9월 마지막 주 수요일로 정한 세계 학교우유의 날(World School Milk Day)이 올해로 21주년을 맞이했다.

지난 2019년 IDF가 전 세계 55개국을 대상으로 한 학교우유급식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상국가 전체가 학교우유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가별 우유 급식률이 상이한 가운데 대부분 국가에서 75-100%의 급식률을 보였으며, 학교급식 또는 과일급식과 연계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현재 전 세계 약 1억 6천만 명의 어린이들에게 균형 잡힌 영양이 공급되고 있다.

국제낙농연맹(IDF)도 '세계 학교우유 정보 허브'를 통해 세계 각국의 학교우유 공급 사례와 데이터를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식품체계와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건강한 식단에서의 우유와 유제품의 역할' 등 학교우유와 관련된 다양하고 유용한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에, 지난 9월 29일 세계 학교우유의 날을 맞아 최근 세계 각국의 학교우유급식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 학교우유급식 운영 현황

북아일랜드의 학교우유급식은 성장기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칼슘, 단백질과 비타민 등 주요 영양소 공급원인 신선한 우유가 포함된 건강한 식단을 제공하고 있다. 균형 잡힌 건강한 식단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간 800개 이상의 일반 또는 특수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약 20만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약 백만 리터의 우유를 공급하고 있다.

최근 북아일랜드 농림부는 학교우유급식이 교직원은 물론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매우 인기 있는 정책으로 정부는 약 백만 파운드(약 15억원)의 학교우유급식 예산을 편성해 2023/24학년도까지 이를 연장 시행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학생들에게 우유를 제공할 계획임을 발표했다.

영국 스코틀랜드 정부는 지난 1940년대부터 보육기관에 다니는 5세 미만 모든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매일 약 189㎖의 우유를 꾸준히 무상으로 제공해왔다. 이에, 지난 8월 1일부터는 프로그램 개편을 통해 우유와 함께 과일이나 채소를 함께 제공하기 시작했으며, 이번 정책 시행을 위해 금년 최대 1,200만 파운드(약 190억원)가 지원되며, 3천개 이상 보육시설에 다니는 11만 6천명의 어린이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지난 1986년부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우유급식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에는 현재 4세부터 14세까지 약 80만명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신청한 학교를 대상으로 유통업체와 계약을 맺어 배송일정은 물론 공급 가능한 품목 및 가격을 조율하여 공급하고 있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온타리오 전역 학교우유 및 영양 프로그램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친 가운데, 계속해서 학생들에게 우유를 공급하기 위해 비대면으로 우유를 배송하고 원활한 공급을 위해 설문조사 및 유선을 통해 우유급식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스위스는 과체중인 어린이와 건강에 해로운 정크 푸드를 섭취하는 어린이에 대한 학부모와 교직원들의 우려가 확대됨에 따라 지난 2001년부터 학교우유 프로그램과는 별개로 매년 11월 '휴식시간 우유의 날(Break-time Milk Day)'을 운영하여 이날만큼은 휴식시간에 우유 섭취를 권장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11월 4일 행사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스위스 전역 약 2,700개 학교 33만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휴식시간에 우유를 제공함으로서 학생들의 체중관리는 물론 정크 푸드 소비를 줄이고 건강하고 영양이 풍부한 간식으로서 우유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지난 2020/21학년도부터 학교우유 급식 제도 개선을 통해 모든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기 시작 후 5일간 무상으로 우유를 공급하고, 학생들의 선택권을 존중해 지역 공급업체의 우유 중 원하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학교에 공급되는 유제품의 당 함량을 최대 4.5%까지 낮추고, 2022/23학년도에는 3.5%까지 낮출 계획이다. 금년부터는 플라스틱 빨대 사용이 금지되기 때문에 이를 대체할 방안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오스트리아 북부지역에서는 100% 재활용 가능한 포장용기를 활용해 매일 약 3만 6천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유, 발효유, 코코아 등을 공급하기 시작하며, 폐기물 및 탄소배출량 저감에도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건강 또는 환경적인 이유로 식물성 대체식품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학교우유 프로그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의 한 채식주의 학부모는 학교우유급식에 식물성 대체우유를 포함시킬 것을 요구한데 이어 비건 단체인 비건 소사이어티와 공동으로 학교 운영위원회에 교내 식물성 대체우유의 합법성을 설명하는 서한을 제출한 바 있다.

이에 학교 측은 교내에서 채식주의 학생들의 식물성 대체우유 섭취를 허용하고 현행 학교우유급식을 재검토키로 결정함에 따라 학교우유급식에서 채식주의 학생들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비건 소사이어티 측은 지난 2019년 어린이들의 알레르기와 식단 문제 등을 이유로 일반 우유와 더불어 식물성 우유를 제공하거나 선택권을 확대해야한다는 내용의 캠페인을 전개함에 따라 스코틀랜드 정부는 기존 우유급식제도를 새로운 '우유 및 건강 간식 지원정책'으로 개정하고 식물성 우유를 추가하고 있다.

▲ '학교우유급식의 중요성' 강조

IDF는 지난 7월 28일 9월 개최되는 UN 푸드시스템 정상회의를 앞두고 개최된 사전회의를 통해 UN 세계식량계획(WFP)의 사무총장이 어린이들의 기아문제 해결 및 성장발달을 위한 학교급식의 중요성을 강조한데 이어 IDF 회장도 민간단체 대표로 참석해 학교우유급식의 중요한 역할에 대해 재차 강조했다.

IDF 회장은 우유 및 유제품은 영양이 풍부한 식품으로 학교우유급식 프로그램을 통해 전 세계 약 1억 6천만 명의 어린이들에게 필수 영양소를 공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어린이들의 영양 및 지속가능한 식품 시스템에 있어 우유는 물론 낙농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피력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미 농무부(USDA)와 보건부(HSS)가 공동 발표한 '2020 –2025년 미국 식생활 지침'을 통해 우유와 유제품의 영양학적 가치가 다시 한 번 인정받은 가운데, 미국 농무부는 어린이 영양 프로그램에 저지방 가공유를 허용한 바 있으며 하원에서도 어린이들의 유제품 섭취를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우유 급식 공급 확대를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뿐만 아니라, 최근 코로나19 확산 이후 18개월 만에 전면등교가 시작되면서 낙농업계는 학생들에게 좀 더 다양한 유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이에, 우유 및 유제품은 물론 라떼, 스무디 등 다양화된 우유급식 공급품목 확대로 유제품 소비를 촉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부동향

탄소중립 이니셔티브 동참

저탄소 낙농업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

IDF는 GDP(글로벌낙농플랫폼)가 주도하는 '탄소중립, 저탄소 낙농을 위한 경로(Net Zero, Pathways to Low-Carbon Dairy(NZP))' 이니셔티브에 적극 동참하고 나섰다.

UN FSS(푸드시스템 정상회의)에 앞서 출범한 NZP 이니셔티브를 통해 세계 산업관계자들과 협력해 기후변화 문제해결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위한 협력방안 마련 및 지속 가능한 식품시스템을 위한 유제품의 중요한 역할 등을 강조할 예정이다.

현재 이에 대한 GRA(농업온실가스 국제연구연맹)에서 기술적 검토 및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며, FAO, 뉴질랜드 농업온실가스연구센터(NZAGRC)와 스코틀랜드 농업대학(SRUC)로부터 자금과 지원을 받고 있다.

이에, 초기 연구를 통해 낙농업계는 이미 생산성과 자원 효율성 개선으로 메탄가스 배출량을 최대 40%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해당 이니셔티브는 네슬레, 다논 등 유업체는 물론 미국낙농가협회 등 세계 전역 40여개 유업체 및 관련 기관의 공식적인 지지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IDF Korea 동향

UN FSS 관련 낙농업계 입장문 전달

지속가능성을 위한 낙농업계 노력 및 중요성 강조

IDF Korea는 지난 9월 UN FSS(푸드시스템 정상회의)에 앞서 전문위원의 자문을 받아 국내 논의장을 맡고 있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낙농업계 입장문을 전달했다.

이를 통해 낙농산업은 식량안전보장 및 UN이 추구하는 궁극적 목표, 즉 빈곤과 기아 퇴치, 건강한 삶의 질 향상, 자연환경 유지 · 보전 등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다.

〈 요 약 〉

□ 목적
- ○ 식량안보에 있어 낙농업에 대한 이해도 제고
- ○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낙농업계의 노력 및 중요성 강조

□ 주요내용
- ○ 전 세계 인구의 오랜 주식으로서 영양소가 풍부한 유제품의 건강학적 효능
- ○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 환경 친화적 생산 촉진
- ○ 전 세계 10억 인구의 생계를 책임지는 필수 산업으로서의 역할
- ○ 우유급식 프로그램을 통한 어린이 및 청소년을 위한 영양소 공급
- ○ 코로나19 위기 속 빠른 적응력과 회복력 강조

우유의 중요성 강조 위한 동영상 제작 참여

IDF가 UN FSS(푸드시스템 정상회의)에서 낙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 회원국에 우유 잔을 들고 있는 사진을 요청해옴에 따라 IDF Korea도 이에 동참했다. IDF는 이를 취합해 동영상으로 제작할 계획이다.

세계 낙농정보 업계 전파

글로벌 낙농뉴스, 현안리포트 등

IDF Korea는 계속해서 국내 낙농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IDF 관련 소식 외에 세계 낙농뉴스를 신속하게 수집·전파하고, 세계 동향을 분석해 보급하는 체계를 이어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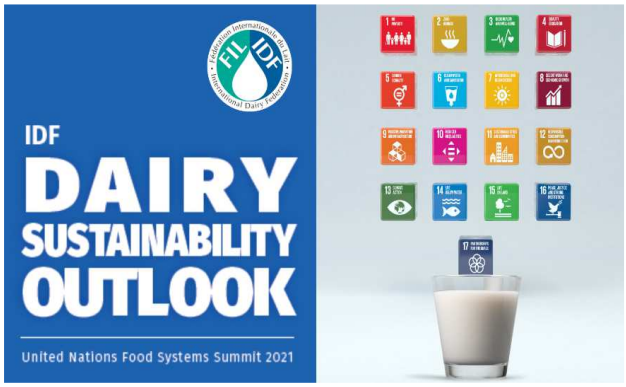
〈 낙농정보 제공 내용(3/4분기) 〉

구분	주기	주 요 내 용
글로벌 낙농뉴스	매일	· 주 10건 이상(월 40여건) · 산업 및 정책, 시장, 마케팅, 영양건강, 지속가능 등
현안 리포트	격주	· (7월 1주) 각국의 2021 세계 우유의 날 기념행사 · (7월 3주) FAO-OECD 낙농산업 중기전망 보고서 · (8월 1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세계 낙농업계 동향 · (8월 3주) IDF 낙농지속가능성 보고서 · (8월 5주) 균형 잡힌 식단에서 유제품의 중요성 · (9월 2주) 단백질 수요 증가에 따른 세계 낙농업계 동향 · (9월 4주) 최근 세계 각국의 학교우유급식 운영 현황

출판물

낙농지속가능성 전망 보고서 특별호 발간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을 위한 낙농업계 사례 소개



IDF는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UN FSS(푸드시스템 정상회의) 사전회의에 맞춰 '낙농지속가능성 전망 보고서' 특별호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세계 각국에서 낙농업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진행 중인 업무를 공유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발간되고 있으며, 금년에는 9월 개최되는 UN 푸드시스템 정상회의의 5대 실천분야를 기초로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을 통해 전 세계 인구에게 안전하고 영양가 높은 식품 공급을 위한 낙농업계의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17개의 사례 연구를 통해 전 세계 인구의 건강과 웰빙은 물론 영양실조 및 기아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낙농업의 사회, 경제 및 환경의 긍정적인 역할을 소개하고 있다.

IDF 사무총장은 "UN 푸드시스템 정상회의와 사전회의는 건강한 식단, 책임 있는 식품생산은 물론 생계 및 지역사회 유지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낙농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중요한 기회로 이번 출판물은 이를 뒷받침하는 좋은 자료가 될 것"이라 전했다.

<IDF 출판물 열람 문의> 낙농진흥회 통계조사팀
(전화) 044-330-2072
(이메일) idfkorea@dairy.or.kr

주요행사

지속가능한 유제품 공급을 위한 비전 공유

– 10월 13일 IDF 리더스 포럼 열려

오는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IDF(국제낙농연맹) 글로벌 데어리 컨퍼런스가 온·오프라인으로 개최되는 가운데, 13일에는 데어리 리더스 포럼(Dairy Leaders Panel)을 시작으로 세계 주요 유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지속가능한 유제품 공급을 위한 비전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포럼에는 덴마크 알라푸드, 프랑스 락탈리스, 중국 멍뉴와 미국 낙농가협회의 CEO와 대표가 참석해 향후 세계 낙농 산업은 물론 안전하고 영양가 높은 유제품의 지속가능한 공급을 위한 비전을 공유하며 직면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UN FSS(푸드시스템 정상회의) TF 위원장인 주디스 브라이언스이 정상회의의 주요 내용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 온·오프라인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될 계획이며, 10월 13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15일까지 3일간 '낙농의 기후변화(A Changing Climate for Dairy)'를 주제로 지속가능한 식단, 식품안전, 가공기술, 정책경제·마케팅 등 낙농산업에 대한 주제발표 및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2021 글로벌 데어리 컨퍼런스 개요
(일시) 2021년 10월 13-15일 3일간
(장소) 덴마크 코펜하겐 * **온라인 동시 진행**
(주제) 낙농의 기후변화
(홈페이지) https://idfglobaldairy.org/